

# 붓물처럼 쏟아지는 아동물, ‘또박또박 읽기책’은?

글 | 유명미(교보문고 강남점 어린이팀 북마스터)

5,6년 전인가. 고객 응대에 정신 없이 움직이고 있던 내게 친하게 지내던 출판사분이 말을 걸어 왔다. “뭘 만들어야 잘 나갈까요?”란 질문이었다.

해마다 5월과 7월, 12월, 즉 방학시즌이 되면 각 방송사마다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그 당시 한창 많이 하던 공연들이 <피터 팬>, <미녀와 야수>, <어린 왕자> 등이었다. 당시 고객들은 공연 관람 전후에 꼭 공연과 관련된 도서를 찾았다. 그러나 다른 공연 원작들은 유아, 유치용 책까지 출간한 상황이고, 그것도 여러 출판사 이름으로 나와 있어서 비교 구매가 가능했고, 나 스스로도 더 좋은 책을 권하기 좋았는데, 유독 <어린 왕자> 만이 초등과 성인물로만 나와 있었다. 유아, 유치용이 없다고 아쉬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던 고객들이 생각나 한 말씀 드렸다.

“유아용 <어린 왕자>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공연할 때도 그렇고, 고객들이 종종 찾으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출판사에서 <어린 왕자>를 만들었고, 그 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초판이 일주일 만에 다 판매되고 재주문이 밀려와 재판을 할 정도였다. 출간한 지 얼마 안 되어 베스트셀러에 진입해 오랫동안 좋은 판매를 유지했던 이 책은 지금까지도 롱런하며 꾸준한 판매기록을 쌓고 있다. 또한 그 이후 여러 출판사에서 <어린 왕자>를 줄곧 출간하도록 만들었다. 유아, 유치시장에 <어린 왕자> 붐을 마련한 책이 된 것이다.

출판사에서든 무척 기뻐했었고, 나 또한 내가 기획한 책, 내 책이라는 생각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판매에 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은근슬쩍 다른 출판사분들에게 자랑 아닌 자랑도 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에 빠져 지냈던 기억이 있다.

그 뒤로 가끔 기획 아이디어가 있으면 출판사측에 소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어나 일어권의 그림책을 보다가 “한글로 번역해서 출간해도 좋겠다”는 책이 있으면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보여 드리기도 한다. 그렇게 내 안목으로 추천해 나온 책이 여러 권 있다. 하지만 그것이 본업이 아니기에 옆으로 살짝 밀어 놓고 내 본업에만 충실하기를 몇 년. 그러다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 ‘이런 책 출판은 어떨까’라는 주제의 청탁이 들어온 것이다.

전화를 받고 “알았다”며 선뜻 대답은 했지만 막상 걱정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갑자기 물어 보면 얼른 생각하지 못한다. 나 또한 어떤 기획을 던져줘야 할지 눈앞이 막막해졌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었다. 그동안 고객들이 나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서 권해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신간도서들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틈새는 없는지를 생각해 봤다. 일주일간 틈만 나면 기억하고 메모하고를 반복해 봤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바로 4세에서 7세의 어린이를 위한 <읽기 연습용 동화책>이다.

초등학교 때, 나에겐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다. 반 아이들 중 몇몇이 교과서를 잘 읽지 못했다. 평소엔 말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읽기 시간만 되면 주눅든 표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땐 왜 그런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읽기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매장에 와서 책을 읽는 아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아이들이라 해도 혼자 책을 읽는 경우는 드물다. 그때쯤이면 한글을 깨우쳐서 혼자 읽을 법도 한데 대부분 부모가 옆에서 소리 내어 읽어 준다. 그렇다고 해

**이 글을 쓴 유명미**는 1994년에 교보문고에 입사해 줄곧  
 광화문점 유아코너 담당자로 근무했다.  
 2000년도에 독서지도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3년에는 교보문고 강남점으로 옮겨  
 어린이팀 북마스터 겸 컨설턴트로 근무중이다.

서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읽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도서를 혼자 읽기엔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텍스트 분량이 많아 버거워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통 아이들이 3,4세가 되면 부모에 의해 소위 공부라는 것을 통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다. 글자를 공부하고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된다. 색칠하기, 스티커 붙이기, 쓰기, 읽기 등의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한글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른 과정의 책은 많이 나와 있는 반면에 읽기를 위한 교재는 너무나 적다. 아니 없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4~7세용으로 나와 있는 동화책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이 혼자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표기(혼자 읽는 나이 5세)를 해주긴 하지만 맞는 경우는 별로 없다(이것은 번역서의 한계라 생각된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아이가 ○살입니다. 이제 막 글씨를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뭐 좋은 책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 막상 권할 만한 책은 거의 없다.

예전 한 출판사에서 단계별 읽기 관련서를 만들기는 했었다. 1단계의 경우는 호응이 좋아서 판매도 많이 했지만 뒤의 2,3단계는 내용 면에서 뒷받침이 되질 않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학습적인 부분만을 강조했기에 판매가 부진했다(지금 모두 절판된 상태이다). 지금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는 그나마 <스팟> 시리즈가 있다. 읽기 연습을 하기에 좋긴 하지만, 단순하고 내용이 적어 6세 이상이 되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아야겠다. 아이들은 반복학습을 통해 많이 배운다. 너무 교훈적이지 않은 재미있는 내용(일상적인 내용, 따뜻한 내용이 아이들에겐 좋다)으로, 한 페이지에 3,4장 정도로 구성을 하되 가능하면 쉬운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해 주고,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삽화를 가능한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색이 들어간다면 너무 어둡지 않은 색으로 쓰자. 그래야 텍스트가 눈에 잘 들어오고, 잘 들어와야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을 만들어 보면 대략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

오늘은 뽀로로가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입니다.  
 옆집의 누피도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입니다.  
 누피와 뽀로로는 같은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유치원을 처음 가는 누피와 뽀로로는 무척 신이 납니다.

정답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대박’ 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간과하고 지나쳤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만 더 생각해 보길 바라며 감히 기획이란 이름으로 몇 자 적어봤다.

많은 출판 관계자 분들이 어린이책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들 하신다. 또한 책을 만들면서 여러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자. 어린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고객의 소리를 듣자. 참신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 기획 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유미**